

하나됨과 나눔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입성하신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입니다.

사순절 연속 기도회가 30일(토)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고난주간 가정예배는 안내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8일(목) 저녁 8시에는 세족예배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며 저녁 7시부터 찬양 잔치가 있습니다. 방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부활절 맞이 교회 대청소가 30일(토) 오후 2시부터 있습니다.

■ 이번 주 지역별 사랑방 모임은 쉽니다.

■ 25일(월) 월요일 테일러 대학(미국) 장진교수, 장신대 고원석 교수가 사랑방공동체학교 방문 예정입니다.

■ 박인하(늘푸른) 청년이 군복무를 위해서 26일(화) 입대합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영동 · 전경희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이시온 청년 (감사)
장미라 집사 (생일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12 호

2024년 3월 24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고난주간의 기도

고난(苦難). 국어사전에 따르면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기독교인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가리키는 의미가 더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계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시기를 고난주간으로 부르며, 부활절을 앞두고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묵상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방공동체에서는 연속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고난의 묵상에는 기도가 필수불가결하지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때에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는 흔히 하나님과의 대화에 비유되곤 합니다. 그런데 살다보면 상대방과 굳이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상태나 기분, 생각하는 바를 깨닫게 되는 익숙한 관계도 생기게 됩니다. 잘 알고 익숙해진 나머지, 표정이나 말투만 들어봐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확실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그분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복음서에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계신 그분의 기도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보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흔히 욕망에 따라 기도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요구하는 바가 적절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다른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모든 기도가 그대로 응답받는다면, 세상은 난장판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이자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 같은 존재가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좋을 대로만 이기적인 신앙, 고난은 빼고 복만 내려달라는 신앙, 즉 기복신
선교와 섬김

앙이 이런 이유에서 왜곡되고 위험한 신앙입니다. 나한테 하나님을 맞추려는 시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서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셨습니다. 간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무언가를 절제하면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멧쟁이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오전 금식을 결의하였습니다. 금식은 전통적인 자기 절제와 고난참여의 방법입니다. 금식은 당연히 배고픔과 무기력을 불러옵니다. 그럼에도 그 과정을 선택하는 것에는 우리 자신의 뜻과 욕망을, 이미 그 누구보다도 크게 겪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뜻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은 전부 재현할 수도, 다시 짊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작지만 괴로운 선택들을 함으로서, 다시 말해 고난을 겪음으로서, 어느덧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중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면서, 힘든 것을 이겨낼 은혜를 받는 시간이고, 나 자신이 바뀌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고난은 고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이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현세에서 겪는 고난에도 의미와 보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수난을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 17:11)”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예수님의 관계처럼 하나가 된다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하여, 예수님의 기도대로 하나되기 위하여 내 것을 꺾는다면, 고난은 도리어 아름다워지고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가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기도를 삶으로 체현하는 것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현실에서 하나님나라의 삶을 누리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

<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146 148 / 93

기도 : 이충환 집사

성경 : 마태복음 18장 1~14절

제목 : 겸손한 자세로 작은 이웃을 돌보자

1. 내용: 하나님께서는 작은 사람도 귀하게 여기신다. (What)

<문단구분>

1~11절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12~14절 잃어버린 양 비유

2. 의미: 겸손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린다. (Why)

1) 자기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2) 어린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린다.

3. 적용: 작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자 (How)

1) 주변에 소외 된 사람을 살펴보고 환대합시다.

2)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겸손하게 대하자.

3)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생명의 줄을 붙들자.

요즘 날씨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시작할 때 주로 날씨가 어떤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날씨 이야기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긴장을 풀고 공감하여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날씨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는 참 변덕스럽습니다. 많은 분이 이 말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뜻한 날이 오는가 하면 추운 날이 찾아오고, 화창하다가도 비가 오고, 흔들리지 않던 나무들이 뿌리를 깊게 박고 있지만 '머리카락'을 휘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감기 들지 않게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난 4년간의 대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올해 3월이 시작되면서 대학원에 다니게 되었고, 좋은 기회가 생겨 중학교 스포츠강사로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환경에 놓이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언제나 긴장되고 설렙니다.

이런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의 날씨도 매우 변덕스럽습니다. 지금 하는 공부가 흥미롭고 재미있다가도 터무니없는 공부분량과 어려운 용어들과 마주하게 되면 의욕이 뚝 떨어져 지치기도 합니다. 스포츠강사 일을 나가게 되면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활기를 되찾고,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하다가도 정말 내가 괜찮은 지도자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날씨는 항상 변합니다. 또한, 그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오죠. 이런 변덕스러운 상황에서 저는 그 날씨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믿음으로, 이끌어주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름의 이유를 찾고 노력하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요즘 날씨는 어떤가요?

젊은이사랑방 조한결 청년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스가랴서 9 : 9
33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갈라디아서 2 : 20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146, 145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요한복음 11 : 18-27 설교자
151 그루터기사랑방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성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216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438(1)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정연갑 이운순 / 봉헌위원 : 박동인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대속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치르신 고난을 생각하며,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베다니에 늦게 가시다. 나사로의 와병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머무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지내시고 뒤늦게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마중 나온 마르다는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전하고, 애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과,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소개하시면서, 영생을 얻을 것에 대해서 믿음을 확인 하셨습니다.

부활에 관한 새로운 관점. 예수님께서서는 마르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부활에 관하여 믿게 하시려고 시간을 늦추셨습니다. 십자가 수난을 앞두고서 제자들에게도 믿음을 확고히 하실 필요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셨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은 같은 단어이지만 내용이 달리 쓰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 사실에 대한 참과 거짓을 가리는 차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보다 깊은 차원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누군가를 신뢰할 때 사용합니다. '신뢰'는 내 능력이 아니라 대상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이운순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참 신기합니다. 일주일 중 반은 쌀쌀하고, 반은 따뜻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는 재밌게 군고구마를 구워먹었습니다. 학교에 날라 다니는 낙엽들과 장작으로 모닥불을 피우고, 작년에 수확한 공동체 고구마를 넣었습니다. 군고구마가 익어 가는데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아이들은 들어가고 선생님이 고구마를 다 익혀서 학교 안으로 가져와 다 같이 고구마 파티를 했습니다. 불 피우는 것도 재밌고, 고구마도 맛있고, 고구마를 요리선생님과 나눠먹는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거주하는 집이자 일을 하던 곳이었던 청와대를 꾸러기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우선 날씨가 너무 좋아서 걷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 가족이 살았던 관저를 둘러봤습니다. 이전에 친구들과는 볼 수 없던 곳인데 참 멋지게 지어진 집을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시에 청와대에서 하는 역사 해설을 들으며 청와대를 돌았습니다. 꾸러기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해설이지만 많은 것을 잘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공중예절을 잘 지키며 멋지게 잘 다녀왔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한 주간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 감기 걸릴 걱정을 많이 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아이들은 교사의 마음과는 달리 축구도 하고, 경찰과 도둑 놀이도 하고, 트램펄린도 타면서 여기저기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작년과 다른 수업 중, 독서 시간과 필라테스 시간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독서함량을 높여 보고자 만든 수업인데 첫 시간엔 책을 고르느라 정신없었는데 차츰 익숙하니 도서관이 도서관다워졌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의 책 읽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서로 읽는 책 속에

배움과 가르침

폭 빠져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필라테스는 몸과 마음을 집중하고 근육을 강화 시켜서 아이들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개설한 수업인데 아이들이 열심히 잘 따라하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점심시간엔 함께 밥상에 앉아 기도하고 반별로 앉아 식사를 해서인지, 아이들이 커서 그런 것인지, 식성이 좋아져서인지 식사량이 많아졌습니다. 바쁜 상차림으로 준비 시간이 길지만 이젠 제법 손발이 척척 맞고 동생들을 잘 이끌어가는 언니 오빠들이 참 기특합니다.

20일에는 이은을 어린이가 생일이었는데 편지와 기도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은율이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간이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해요.^^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매 쉬는 시간마다 왁자지껄 축구를 하는 소리가 빈번히 들려오는 나날입니다. 축구골대를 바꾸니 더욱 신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멋쟁이들은 연속기도회에 옹기종기 여럿이 모여 참여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귀한 경험을 가졌습니다. 여러번 참여하는 멋쟁이가 있었던 만큼, 좋은 경험으로 남았길 바랍니다.

요즈음 독서를 하는 분위기도 불이 붙은 듯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학기 초반인데도, 책돌이상을 받고자 책을 열심히 독파하는 멋쟁이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에 발맞추듯 책장을 독서실로 확장하고 필독도서를 그곳으로 옮기는 작업도 실행했습니다. 이번 화요일에는 첫 생일파티를 열었습니다. 놓쳤다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모두가 재미있게 즐긴 생일파티 였습니다. 목요일에는 안전교육으로 <화재 대피>, <뱀&벌 대처>교육과 대처실습을 진행했습니다. 반복되기에 뻘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벌을 올려서 대피하는 훈련까지 능숙하게 마쳤습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으로, 멋쟁이들은 오전에 금식하면서 고난에 동참하고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연속기도회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생겨나는 시기에,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 교사 : 이어진 >

아침 풍경

아침 6시 자연예배당으로 갑니다. 아침 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지없이 든든하게 같은 자리에 앉아 기도하시는 집사님. 바닥에 앉기가 힘들어 꼬꼬만 꾸러기 의자에 앉아서, 그것도 어려워 서서 기도하시는 지체들. 구성원을 바꿔가며 우루루 요란스럽게 들어오는 멧쟁이들. 그리고... 노동이 기도인 것을 몸소 보여 주시는 베다니 주방 요리 선생님들. 사랑방의 아침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라며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면 어둠은 어느새 밝음이 되고 요란한 새 소리들로 공동체 마당은 가득합니다. 마당을 지나다 보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생명들을 만나고 생명을 허락하신,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봉우리를 열어낸 노란 산수유에게 감탄사로 칭찬의 마음을 전달하고, 목련은 언제나 피려나. 간절함을 담아 살피고 또 살핍니다.

잘 갈려진 밭을 보면서는 언제 또 이렇게 일을 하셨대.. 팬시리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베어진 나뭇가지들과 정리되어 가는 화단. 아직은 정리 중이지만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주변을 보면서 지나간 누군가의 손길을 봅니다.

해는 어느새 환하게 비춰지고 잠에서 덜 깬 멧쟁이들이 눈을 비비며 운동장으로 모입니다. 새천년 건강 체조의 구수한 국악이 울려 퍼지고 한 동작으로 합을 맞추는 몸짓과 함께 하면 비로소 몸이 깨어나고 꿈결인 듯한 정취에서 벗어납니다.

하루의 시작입니다. 똑같은 일상 같지만 어제와 다른 오늘입니다.

오늘도 어김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랑을 알려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에 가슴이 벅차옵니다. 행복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정다운 전도사

찬송 : 151장, 146장

성경 :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전쟁중에 있는 곳에 평화가 있기를>
세계 곳곳의 전쟁들이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차 잊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린이들과 힘없는 민간인들의 희생이 전제되어 있는 전쟁이 하루 빨리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오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헤세드공동체를 위해 >
새롭게 참여하게 된 공동체 식구들과 좋은 삶을 이어가기를 위해, 공동체를 이끄시는 장로님과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 1) 사순절 연속기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참여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2)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화단에 파릇파릇 꽃들이 올라와 개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꽃들이 잘 올라올 수 있도록 낙엽과 죽은 풀들을 정리하고 죽은 나무도 베어내고 가지치기도 하면서 봄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뭇가지를 태워 없애고 쓸만한 나무는 장작으로 쌓아두며 봄이지만 겨울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정리하고 버려할 것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낡고 고장난 집기들을 모아 버리려하니 이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주변이 잘 정리되어 아름다운 사랑방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 장영미 전도사 >